

2. 도시환경과 조명의 역할

The Role of Urban Environment and Lighting

도시는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이다. 때문에 도시에는 고궁이나 옛 건축물이 있고, 화려하고 심플한 현대건축물도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작품들도 있다. 이렇게 많은 요소와 함께 시간에 흐름을 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요즘은 도시와 도시의 경쟁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한국에 경쟁상대는 대만이라든가 프랑스, 독일이라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서울과 동경이 경쟁 혹은 부산과 파리의 경쟁 등 좀 더 세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디자인 서울이라는

강력한 설정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등 모든 도시가 각각에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도시계획에 있어서 경쟁력의 중심에 도시야간경관과 조명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제 도시는 주간 시간대와 함께 야간 시간대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에 생명력은 조명에 역할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도시의 경관 또는 조명연출계획은 어떻게 구성, 혹은 구상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검토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목 차

1. 도시야간 조명과 환경
2. 도시환경과 조명의 역할
3. 도시공공 디자인 시설물과 조명
4. 미래조명에 대한 이야기

필자 : 손장복, 현 동양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

by Sohn, Jang-bok



- 한국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학회 이사, 조명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 한국 도시경관학회 부회장
- 한국 IBS 코리아 협회 이사
-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인천시 경관 위원회 위원
-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심사위원

2. 도시 환경과 조명의 역할

도시는 시간의 공간 속에서 낮과 밤이라는 상반된 환경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곳이다.

또한 도시는 우리 인간의 삶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환경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도시환경은 주간에 보여 지는 느낌과 야간에 보여 지는 느낌이 서로 상반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는 주간에 경우 보여 지는 모든 것을 여과 없이 눈으로 인지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반면 야간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부분적 요소만을 빛을 통해 강조할 수도 있고 완전히 삭제 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는 야간환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변화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를 원하게 된다.

오래전 도시들은 야간 시간대에 조명의 역할을 단순히 안전성 확보용으로만 사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조명의 역할은 위험요소로부터 사람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여 방향성을 찾고 그 도시만의 랜드마크 요소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보다 넓고 큰 욕구를 충족 시켜야만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범위가 도시 전반에 걸쳐 확산,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도시는 문화, 예술등과 같은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조각, 그림, 음악 등 독창적인 요소에 조명을 대입시키면서 조각에는 음과 양을 이용한 새로운 모습을 표현하게 되고, 그림 역시 색온도 및 색조화를 통해 전혀 다른 느낌의 그림을 표현하게 할 수 있고 빛과 음악에 하모니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 도시는 빛과 함께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더욱 더 깊게 존속시키며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도시환경에 있어서 야간 시간대에 조명의 역할은 어떤 것들

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도시환경에 있어서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구조물들의 다양한 랜드마크(Landmark)적 요소를 이미지와 상징성으로 어떻게 보여 질 수 있는냐 하는 것에 그 역할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면 도시환경에 있어서 조명의 역할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도시환경에 있어서 조명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알기 쉬운 거리를 만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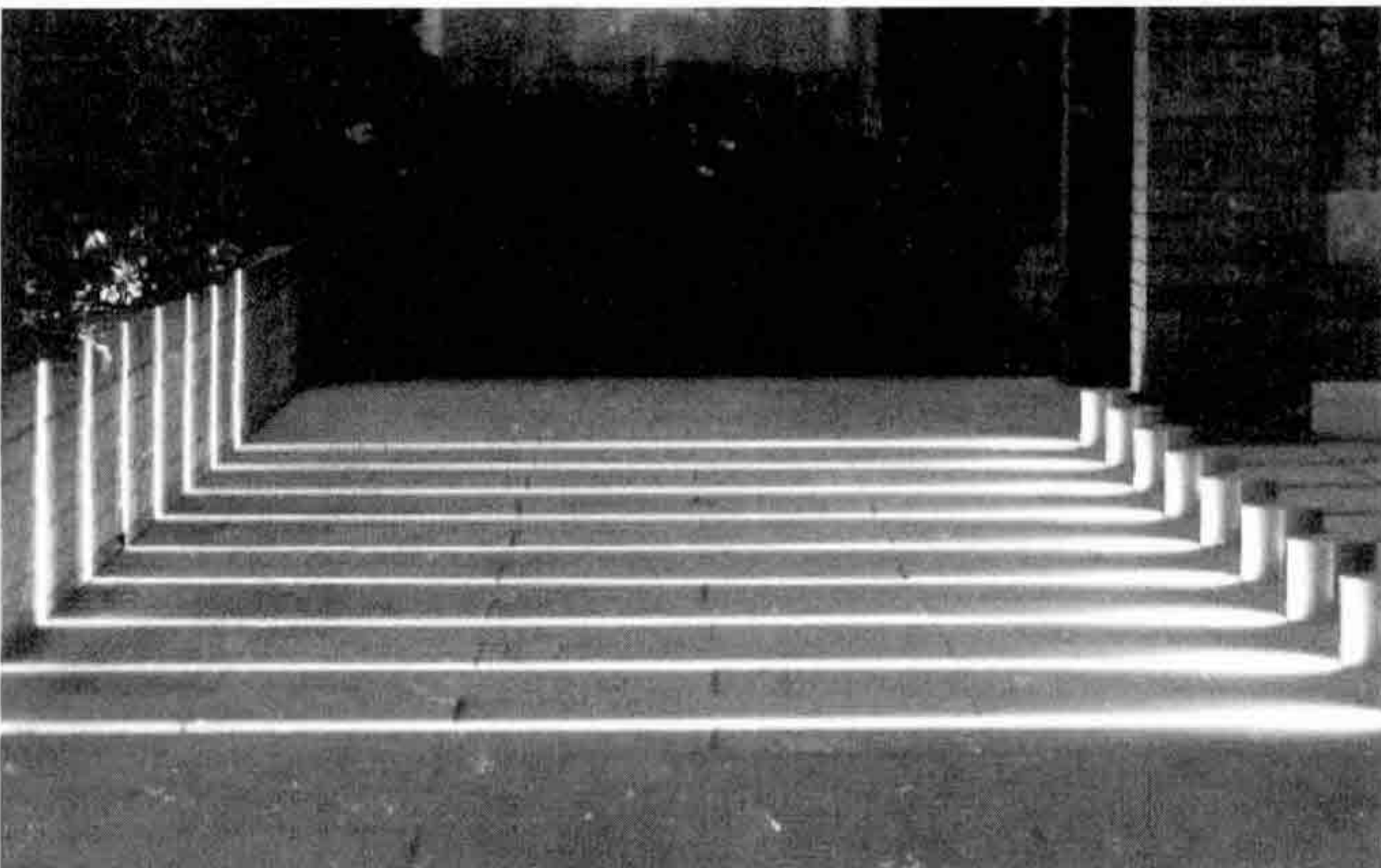
도시에 있어서 자신이 이동하는 방향성이나 목적지로의 이동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거리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야간 시에는 그 이동의 동선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인지되어야 한다. 거리는 대체적으로 큰길, 중간길, 작은길 등 그 길이나 넓이 등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나 소비전력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인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둘째, 거리의 특징을 강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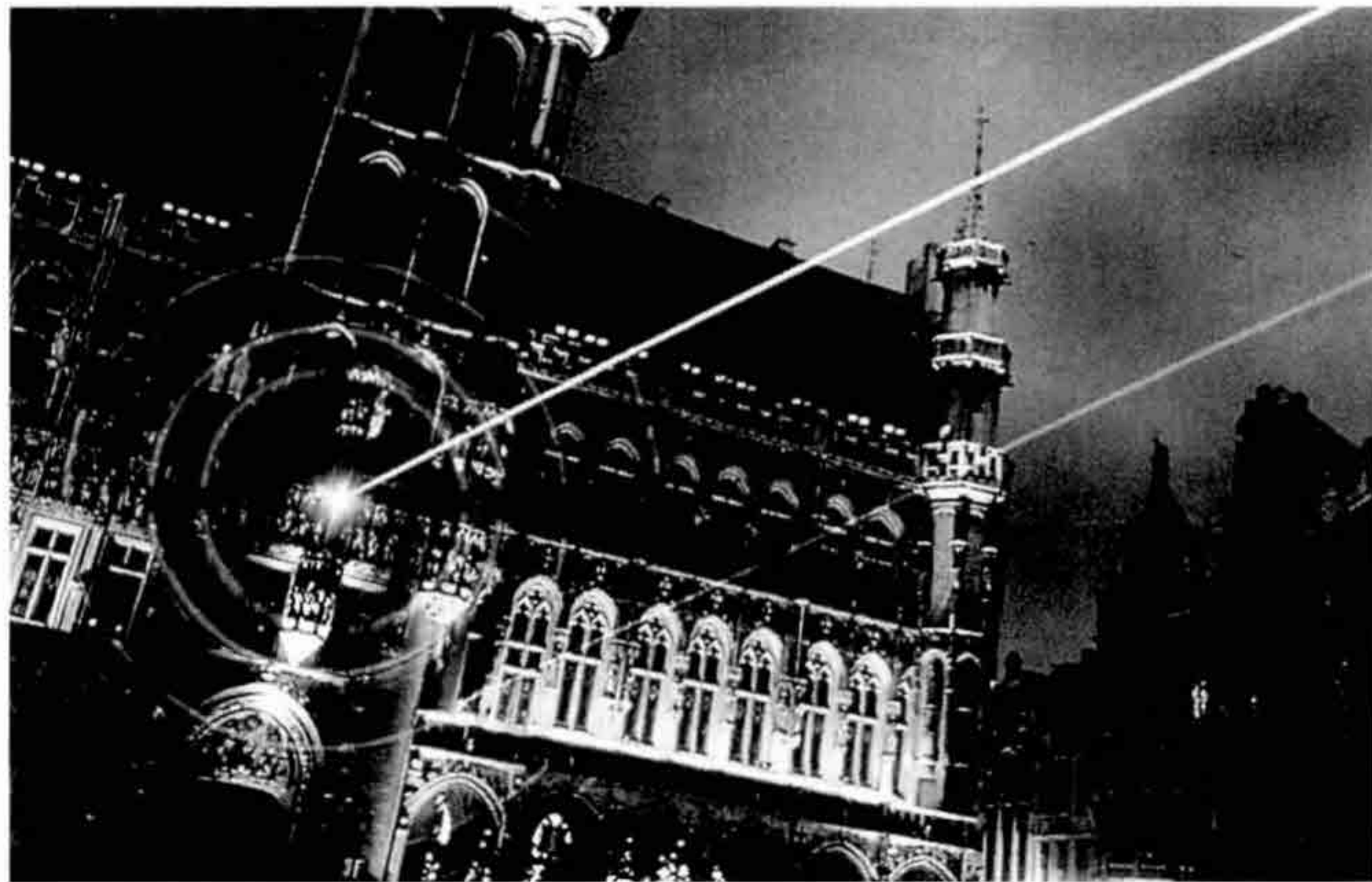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역사, 풍토 문화가 거리의 건물들과 거리조명을 통해서 표현되어 아이덴티티(identity)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도시의 특성을 강조하여 타도시와는 구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써 야간의 조명연출 효과로 더 한층 지역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창적인 도시로 인지 될 수 있다.

셋째, 이벤트가 있는 도시

연출 조명을 활용하는 것이다. 역동성 있는 상가나 쇼핑 타운 등 생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에는 계절에 따른 연출을 하여 시간의 변화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러가지 색다른 아이디어와 이벤트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연인들의 이름을 조명타워에 연출 시켜 준다든가 생일, 약속 등을 활용할



오사카성 벚꽃축제



브르셀 시청사 레이저 이벤트

수도 있고 워터 스크린을 이용한 사진공개 등등.

조명연출을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는 많은 이용객을 끌어오는 경제적 수익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야간 경관조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가 부족한 많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지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도시의 야간조명에 대한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각 지역 내부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 유발효과가 전무한 지역일 경우 여타 천연자원 자원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자원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야간 조명을 이용하여 관광객 방문 효과가 창출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소비가 파생되므로 민관 차원에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충분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지역 사회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명하려는 오브제의 아이덴티티(identity), 구조(structure) 그리고 의미(meaning)를 잘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이나 다른 오브제들간의 관계(context)에 대한 패턴 또는 공간성을 내재하고 있어야 하며, 보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정서적인 의미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

경관조명을 계획하는 것은 조명디자이너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고, 사회로부터 수용되고 있는가를 정하는 것이다. 빛이 단순한 어둠을 밝히는 부분에서 어둠과 조화를 이루며 일치되는 환경으로서 빛과 어둠이 통합적으로 인지되는 것이기에 그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경관 디자인은 먼저 사회적인 주체를 이해하고 조명을 통하여 지역사회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 또한, 주변환경의 밝기를 규정하고, 공간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본적인 밝기를 형성하여 위계를 설정하고, 단계를 구분하여 대상물과의 대비를 통하여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환경의 유형에 따라 구조물 조명(Structures Lighting), 자연적 조경 조명(Softscapes), 인공 조경 조명(Hardscapes) 그리고, 특수 연출 조명(Special Light)의 순서로 외부 조명 방식을 나눌 수 있다.

끝으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명의 기능(조명효율과 조도 확보 및 운용)을 적절하게 강조하고 삭제하는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적인 경제적 효과와 경관 조명에 의한 아름다운 기능이 어울려 쾌적한 삶의 환경이 더 한층 높아질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도시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욕구 충족의 공간으로써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보존하고 또 삶 자체를 살아가는 공간으로 진화되어 영원한 우리 미래의 터전으로 남아야 한다. ■